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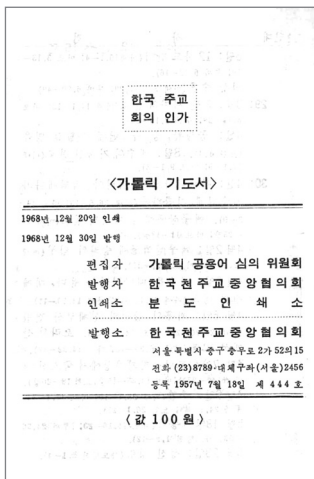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공식 기도서, 『가톨릭 기도서』의 초간 연도는 1968년이다

- 통설로 알려진 ‘1972년 초간’의 오류를 바로 잡다 -

한국 천주교 최초의 공식 기도서는 1862년 서울대목구 목판인쇄소에서 간행된 『천주성교공과』(천주성교공과)입니다. 수록된 기도문의 변경에 따라 ‘천주성교공과’ 내용이 수정되었지만 기본 체제는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Sacrosanctum Concilium)이 발표(1963년 12월 4일)된 이후 우리말 미사 전례 개혁과 기도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식 기도서로서 『가톨릭 기도서』가 간행되었고, 현재까지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기도서』의 최초 간행[초간(初刊)] 연도는 통설적으로 ‘1972년’으로 알려졌고, 가톨릭사전이나 인터넷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가톨릭 기도서』의 초간 연도를 1972년으로 알고 있었고, 글이나 강연에서 그렇게 쓰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가톨릭 기도서』 초간 연도가 1972년이 아니라 1968년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시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이견주 아녜스 수녀님은 메일을 통해 1968년 12월 30일자로 간행된 『가톨릭 기도서』(국립중앙도서관 소장)와 그와 관련된 교회언론 기사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1987년에 간행된 『가톨릭 기도서』 판권에는 ‘1972년 초판’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서문’에는 ‘1968년 9월 8일’에 작성된 글을 싣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주제로 중요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가톨릭 기도서』 관련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1968년 12월 30일 자로 간행된 『가톨릭 기도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전에 알지 못했던 1968년 판 『가톨릭 기도서』의 존재와 관련 자료를 접하게 된 필자는 기존의 ‘1972년 초간’ 통설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톨릭 기도서』 초간 연도가 1968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필자가 검토하고 정리한 내용을 이견주 수녀님께 답메일로 보내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가톨릭 기도서』와 관련하여 수녀님이 주신 정보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필자가 검토·보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화된 『공과』”, 1968년에 『가톨릭 기도서』로 간행되다

『가톨릭신문』 634호(1968.9.8) 3면에는 “한국교회 신자들의 기도생활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공과』, 즉 『천주성교공과』가 “현대화 및 간소화”되어 “8월 30일 인쇄에 회부되어 멀지 않아 『가톨릭 기도서』란 이름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이견주 수녀 정보 제공] 실제로 12월 20일 인쇄[완료], 12월 30일 발행된 1968년 판 『가톨릭 기도서』를 가리키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기사에는 “새 『가톨릭 기도서』”의 구성과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1968년 판 『가톨릭 기도서』와 동일합니다.

1968년 판 『가톨릭 기도서』의 ‘서문’에는 “『성교공과』라는 기도서 … 그 개정용 서둘러 온지 어언 5년이 흘렀다. ‘전국전례위원회’에서 작성한 순서를 따라 ‘가톨릭공용어심의위원회’에서 알기 쉬운 말로 기도문을 고쳐’ 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서문’의 작성 일자 9월 8일이고 작성자는 ‘한국 주교회의’였습니다. 1963년부터 기도서의 개정작업에 들어가 5년 만인 1968년에 간행되었고, 서문의 작성자인 ‘한국 주교회의’가 판권에 나오는 것처럼 ‘인가(認可)’의 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공식 기도서인 『가톨릭 기도서』가 1968년에 ‘초간’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1972년 판 『가톨릭 기도서』가 1968년 판 대신 ‘초간본’으로 널리 알려져 ‘통설’화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1968년 판의 개정본’이자 ‘1972년 초판’인 『가톨릭 기도서』가 1997년 이전까지 사용되다

『가톨릭신문』 841호(1972.11.19) 1면을 보면, “새 주일미사 경본을 수록한 『가톨릭 기도서』를 발행”했고, 새 경본은 1970년 교황청 경신성성에서 편찬한 『새 미사 경본』을 ‘가톨릭공용어심의위원회’가 번역·편집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이견주 수녀 정보 제공] 여기서 언급한 『가톨릭 기도서』는 10월 30일 ‘초판’된 1972년 판 기도서를 가리키는 것이며, 1968년 판 기도서에 『새 미사 경본』(번역·편집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68년 판과 1972년 판을 비교해 보면, 전체 편제[목차]의 변화는 물론 기도문의 순서와 제목이 바뀌는 경우, 기도문 자체가 없어지거나 통합 또는 세분되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일부 내용의 수정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편된 ‘개정본[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1972년에 간행된 『가톨릭 기도서』는 기존의 1968년 판과 다른 ‘(개정본) 초판’으로 인식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후 1997년 이전까지 간행된 기도서들은 기본적으로 1972년 판의 편제와 내용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 판권들에는 “1972년 7월 30일 초판 발행”이 명기되었습니다. 수원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된 1976년 판은 내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1972년 ‘초판’에 이은 ‘8판’이었고, 1984년 판은 약간의 수정[고백의 기도] 내용 변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1972년 ‘초판’ 다음의 ‘중판(重版)’으로 각각 판권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987년 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견주 수녀 정보 제공]은 기도문 제목 변경 및 추가(103위 성인 호칭 기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1972년 ‘초판’의 ‘수정판’으로 판권에 명기되었습니다. 동시에 초간본인 1968년 판이 1972년 판 이후 기도서의 원형이라는 인식이 유지되었기 때문인지 각 판본의 ‘서문’은 모

두 ‘1968년 9월 8일’에 작성된 글을 실었습니다[1987년 ‘수정판’에서는 ‘1968년 서문’과 함께 1987년 6월 7일자로 작성된 ‘수정판을 펴내면서’를 함께 실었습니다]. 즉, 1972년 ‘초판’의 의미는 『가톨릭 기도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의 최초 간행[초간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이어지는 판본의 ‘최초 출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사통상문』의 개정에 따라 새로 편찬된 1997년 판 『가톨릭 기도서』는 새로운 판본이라는 의미에서 ‘제1판’ 발행이라고 판권에 명시했고, 기존의 기도서와 달리 ‘1968년 서문’ 대신 1997년 7월 5일자로 새로 작성한 ‘펴내는 말씀’과 ‘인사 말씀’을 책 앞에 실었습니다. 2018년에는 개정된 『로마 미사경본』과 『미사 독서』를 반영하고 편제와 기도문을 개편(추가)한 『가톨릭 기도서』가 간행되었는데, 책 표지에서부터 ‘개정판’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후에도 변화된 기도문을 반영하여 ‘재판’, ‘제3판, 개정판’을 간행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톨릭 기도서』의 1972년 ‘초판’은 ‘개정본의 초판’, ‘개정본의 제1판’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972년 판이 1968년 판의 ‘개정본’이라는 사실을 판권에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1968년 판이 초간이라는 사실이 잊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1972년 판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공식 기도서로 ‘초간’[초판된 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통설화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6)	(7)
서 문	수정판을 펴내면서
<p>신자들의 신앙 생활은 거룩한 전례와 여러 가지 성사로써 지낸다. 거룩한 전례는 성당에서 시작되고 가정으로 옮겨진다. 이제 가장 중심의 기도서가 한국 신도들에게 제공된다. 기쁜 일이다.</p> <p>지금까지 「성교 공과」라는 기도서가 사용되고 있다. 아틀달고 유익한 기도문이 풍부히 수록되어 오늘날까지 한국 교우들의 유일한 길동무가 되어 왔다. 그러나 옛적에 쓰던 용어가 많고 옛 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한문이 많이 섞여 있을 뿐더러 공소 중심의 기도서였기에 일반 교우들에게는 그다지 필요치 않은 기도문이 많았고, 공소 예식이 바뀐 오늘날에 와서는 공소에도 그 사용 가치가 줄어들었으므로 그 개정을 서둘러 온 지 여덟 5년이 흘렀다.</p> <p>「전국 전례 위원회」에서 작성한 순서를 따라 「가톨릭 공용어 신의 위원회」에서 알기 쉬운 말로 기도문을 고쳐 놓았다.</p> <p>문제의 아름다움은 옛 공과를 따르지 못했으나, 알기 쉬운 말을 알로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교우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는 기도서라 하겠다. 열심한 기도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1968년 9월 8일 한국 주교회의</p>	<p>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 정신에 따라 신자들의 기도 생활과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돕고자 가톨릭 기도서를 펴내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p> <p>이제 전례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각종 전례서들을 개편하는 200주년 기념 전국 주교회의의 제안도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례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서의 편찬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랜 시일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우선 현행 기도서를 몇 가지 점에서 수정 보완하여 발간한다. 이 수정판에서는 기도문을 개정하지 않고 다만 기도하기에 편리하도록 일부 보완하였으며, 기존의 기도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면을 정리하였다.</p> <p>이 작은 일들이 모든 신자들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기도서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발행되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년 6월 7일 성신 강림 대축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김 남수 주교</p>

‘서문’과 ‘수정판을 펴내면서’ - 1987년 수정판 『가톨릭 기도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가톨릭 기도서』가 1972년에 초간되었다’는 통설은 어떻게 널리 퍼지게 되었는가

『가톨릭신문』 1452호(1985.4.21) 1면에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가톨릭 기도서』 개정 기초작업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기사 중 “현행 『가톨릭 기도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국 전례위원회의 기도서 개편안에 따라 지난 1969년 획기적으로 개정’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이건주 수녀 정보 제공] 여기서 ‘1969년 개정’된 기도서는 1968년 12월 30일에 발행되고, 1969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 1968년 판 『가톨릭 기도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969년 개정’ 사실을 언급한 사람은 당시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최석우 신부이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공식 기도서로 ‘초간’된 책이 1968년 판 『가톨릭 기도서』라는 사실을 당시 최석우 신부님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가톨릭대사전』 1권(1994년) ‘가톨릭 기도서’ 항목(101쪽)에서는 이와 다른 내용이 나

입니다. “1968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전국 전례위원회’의 기도서 개편안에 따라 ‘가톨릭공용어심의위원회’에서 5년여의 편찬 기간을 거친 끝에 1972년 10월 30일 주교 회의의 인준을 거쳐 초간되었다.” 주교회의 산하 위원회에서 5년간 편찬하고 주교회의의 인가(인준)를 거쳐 간행[초간]했다는 것은 1968년 판 『가톨릭 기도서』의 ‘서문’과 ‘판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톨릭대사전’에서는 1972년 초간을 전제로 5년 전인 1968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고 기술한 것입니다.[이건주 수녀 언급] 1968년 판의 개정본=1972년 ‘초판’을 1972년 ‘초간’으로 혼동·오해한 것인데, 현재 유포된 통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톨릭신문』 기사에서 보듯이 1985년 당시 이미 1968년 판 『가톨릭 기도서』가 ‘초간’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보다 늦은 1994년에 간행된 『한국가톨릭대사전』에는 1972년 판 기도서가 ‘초간’본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기도서』 ‘초간’에 대한 두 가지 서술은 1985년 2월 20일에 간행한 『한국가톨릭대사전』에서도 나타납니다.

1985년 『한국가톨릭대사전』의 ‘천주성교공과’ 항목(1129-1130쪽)에는 “1862년 목판으로 인쇄되어 1969년 『가톨릭 기도서』가 나오기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공식기도서로 사용되던 책”이고, “그 뒤 『천주성교공과』는 1963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 결과로 1969년 새로운 기도서인 『가톨릭 기도서』가 나올 때까지 수없이 재판되었고”로 나옵니다. 여기서 1969년에 나온 『가톨릭 기도서』는 앞에서 언급한 최석우 신부의 말과 같은데, 1968년 판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같은 책의 ‘가톨릭 기도서’ 항목(15쪽)에는 “1968년 주교회의 전국전례위원회의 기도서 개편안(案)에 따라 가톨릭공용어심의위원회에서 편찬하여 주교회의 인준을 거쳐 1972년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초간”했다고 나옵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1972년 초간’이 처음 기술된 것인데, 현재 통설의 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모순되는 서술 내용을 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1985년 『한국가톨릭대사전』 ‘가톨릭 기도서’ 항목의 오류는 1994년 『한국가톨릭대사전』의 같은 항목에서 시정되지 않았고, 1985년 『한국가톨릭대사전』의 ‘천주성교공과’ 항목에서 언급된 ‘1969년 『가톨릭 기도서』’라는 내용은 2004년 『한국가톨릭대사전』의 같은 항목(8124~8125쪽)에서는 “1972년 『가톨릭 기도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존의 오류가 고쳐지지 않은 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기도서』가 ‘1972년 초간’되었다고 정리된 것입니다.

이후 ‘『가톨릭 기도서』가 1972년에 초간되었다’는 오류는 여러 가지 매체(논저, 인터넷)에서 인용되면서 확산되었고, 현재 통설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공식 기도서로 편찬된 『가톨릭 기도서』가 1968년 ‘초간’되었고, 이후 1972년, 1997년, 2018년에 편제와 내용이 개편된 개정본이 간행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잘못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III’(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 후원회원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올해부터 종이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기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던 회원님께서도 연구소로 연락주십시오. (주민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제공해 주셔야, 홈택스에서 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